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1. 4. 2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4월 21일(수) 14:00~16:54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1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1년도 제6차,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93호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첫 번째, 감사에 대한 주의 촉구 및 각서징구와 관련한 논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그 부분은 新외감법이 2018년 11월1일에 시행되고 결산기까지는 한두 달 정도 있었음. 그러다 보니까 숙지할 시간이 너무 짧았고, 첫 조치이다 보니까 계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반 입장임. 다만, 그 이듬해부터는 1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음.

- (위원) 두 번째는 2019년, 2020년 사이의 과태료 부과 관련 하여 감사 개인에 대해 50% 감경하는 (안)인지?
- (보고자) 그것은 기존에도 개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50%를 감경해 왔음. 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계속 감경의 입장 (stance)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음.
- (위원장) 新외감법령 도입('18.11.1. 시행)으로 회사의 감사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문서화 및 이사회 대면보고의무가 신설되었음. (주)○○○○○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나, 동 사안은 개정 외감법령 시행 직후 발생한 만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동 회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도 아니며, 회사가 내부회계 관리체계를 갖추고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는 등 여타 의무는 모두 이행한 만큼, 위반행위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별표9) 과태료 부과기준 4호'바'목을 적용하여 과태료는 면제하되, 위반자에 대한 주의 촉구 및 각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겠음. 동 사안은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첫 위반사례인 만큼, 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가 규정 속지 미비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비상장 중소기업들에게 해당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제도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94호 『(주)○○○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 제95호 『(주)○○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주)○○은 제보한 사람이 업무행위자 아닌지?

- (보고자) 맞음. 경영진의 지시로 이 업무를 행한 당사자였음.

○ (위원) 본인이 이런 행위를 하고 이렇게 제보를 했는데도 포상금을 주는 것이 맞는지?

- (보고자) 지금 제외 사유에는 신고자가 당해 부정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다른 관련자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피동적으로 한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 행위는 했으나 피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판단을 한 것인지?

- (보고자) 맞음. 저희는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 (위원) 포상금 지급 후 형사처벌 받을 경우 환수 가능한지에 대해 타법 사례 등을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보고안건 제25호 『○○○○년도 ○○○○·○○○○ ○○ ○
○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검색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회계포탈’ 홈페이지 개선 등’이라고 기재해 놓으셨는데 회계포탈 홈페이지에 심사지적사례, 감리지적 사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보고자) 저희들이 증선위 조치 내지 금융위 조치가 끝나면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내역을 회계포탈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회계포탈에 들어가서 회사명을 검색하게 되면 회사명과 더불어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와 더불어 저희가 따로 과거 감리 지적사례들을 모아서 반년, 연단위로 다시 한 번 홍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위원) 안전 내용 중에 ‘디지털 감리기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감리를 하는 것인지?

- (보고자) 저희들이 파이썬 기반의 프로디씨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했음. 원(元) 데이터를 넣어서 돌리면 특이사항을 자동적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활용하려고 저희 금감원에서 새롭게 도입한 것임.

○ (위원) 기존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과 효용성이 있는지?

- (보고자) 기존에 저희 나름의 회계분식모형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감리대상을 선정하거나 분식 위험의 정도를 포착하는 수준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디지털 감리기법으로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회사의 원장데이터를 그대로 다운(down)받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하는 특이사항들을 추출해 낼 수 있음. 디폴트(default)값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가 원한다고 하면 코딩(coding)을 통해서 나름의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도입했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몇 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향후에는 많이 확대하려고 함.

○ (위원) 新외감법이 들어오면서 크게 바뀐 것 중 하나가 재무제표 심사제도임. 명확하게 제도가 바뀌었고, 재무제표 심사라는 제도가 2019년 4월에 도입되었을 때의 언론을 찾아보

면 거기 핵심은 사전과 신속임. 심사·감리와 재무제표 심사는 무엇이 다르고 같은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재무제표 심사는 과실, 비반복적에 대해서는 주의경고로 수정권고를 시키고 신속종결 시키는 제도임. 반면 심사·감리는 주의경고를 하더라도 감리위, 증선위를 다 거쳐서 조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권고제도가 없음.
- (위원)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된 것이 금감원의 업무 적체(load)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그 많은 기업을 15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감독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생김. 그래서 그것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임. 아무튼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사전에 어떻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기존의 경험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하고, 그것을 계속 보완하실 필요가 있음. 그리고 큰 가닥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재무제표 심사 제도이고 또 하나는 회계법인의 공공성 확보임. 그러한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회계법인의 감독방안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제도와 직결되어 있는 제도임. 그런데 회계법인의 공공성, 차등성, 맞춤형 품질관리를 통해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제도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상장법인 감사인의 품질(quality)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임. 그냥 공공성만 확보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내부에 감사인감리실이

만들어졌는지?

- (보고자) 2월에 만들어졌음.

○ (위원) 감사인감리실의 2021년 목표는 무엇인지?

- (보고자) 기본적으로 감사인감리실이 생기기 전에는 감리주기가 최대 5년간의 감리주기였는데 이것이 확대되면서 감리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다 보니까 매년 해야 될 감사인 감리대상이 작년에는 9개였는데 올해는 15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리고 일률적으로 감사인감리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차등화된 감리나 리스크분야에 중점해서 감리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 (위원)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 차등화된 감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음. 그런데 저는 이 개수보다 어떻게 실효성 있게 품질관리를 해서 회계법인의 품질을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전에도 품질관리감리를 계속 해 왔고 그 지적사항이 계속 되어 왔음.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연차별로 2021년에 상장회사 감사인은 최소한 이 정도의 품질(quality)은 갖추어야 된다는 목표(target)를 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발전시켜야 됨. 결국 저는 바뀐 제도의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상장법인 감사인 제도를 감사인품질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품질(quality)을 향상(grade up)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해서 중소형의 경우에는 목표수준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잘하는 곳

은 잘하는 대로 부족한 것은 보완시키고 그렇게 목표(target)를 정해서 가야 된다고 보임. 기존에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기 바람.

- (보고자) 알겠음.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96호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 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재고자산의 80%가 외부보관인데 재고실사를 직접방문이나 외부조회서로 하지 않고 그냥 회사가 제시하는 보관증만 확인을 했음. 이 정도면 상당히 중대한 과실인데 2단계 감경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조치되는 내용은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감사반이 주권상장 하는지?

- (보고자) 지금 할 수는 없으며, 감사반에서 탈퇴해서 회계법인에 가는 경우는 제한이 될 수 있는 조항임.

○ (위원) 감사반의 경우에는 현재의 제재조치가 무의미함. 지

금 의미 있는 조치는 직무연수 8시간임. 그런데 한 행위를 보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임. 80%에 해당하는 외부보관재고를 전혀 확인도 안 하고 회사가 제시하는 보관증으로만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를 무력화시킨 것임. 지금 이 조치는 조치로써의 효력이 전혀 없음.

- (위원) 감사반의 경우에는 현행 부실감사로 인한 제재조치가 무력화되어 이 제재조치를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듦. 제재조치도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단계에서 직무연수라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 (보고자) 사실 2016년 조치이다 보니까 新외감법이 적용 안 됨. 新외감법에서는 과징금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징금이 부과되면 실질적인 조치는 될 것으로 보임. 또 하나는 감사업무 일부정지라는 제도도 도입이 되어 新외감법이 도입되면 실질적인 조치는 아마 될 것으로 보임.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음.

- (위원) 알겠음. 이것은 제도적으로 치유가 되어 있는 것이고 예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제재니까, 직무연수 시간을 좀 올려주면 되겠음.

- (보고자) 공인회계사 직무연수는 제재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량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봄.

- (위원장) 회사가 외부에 보관중인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함에도 외부감사인은 실사입회 및 외부조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을 현저히 결하였음에도 원안상의 조치는 감사반의 조직특성상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 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직무연수 부과에 대해서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원조치 기준으로 부과하고자 함. 공인회계사 ○○○, ⊕⊕⊕, ◎◎◎에 대해서는 직무연수 16시간, 공인회계사 ■■■, ▮▮▮, ▮▮▮▮▮에 대해서는 직무연수 8시간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97호 『에너테크인터내셔널(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제98호 『(주)소모에너지엔테크놀러지의 [개별,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제99호 『(주)퓨렉스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2018년 한 해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2019년에는 해소가 된 것인지?

- (보고자) 거의 해소되었음.

○ (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여부에 대해 회사는 인지를 못하였는지?

- (보고자)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이것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것을 시인하고 수정공시를 한 것임.

○ (위원) 의도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인지?

- (보고자) 의도성은 있어 보이지 않고 우발부채 성격도 아니고, 지분관계 때문에 이 회계연도에 특수관계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과실’로 조치할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음.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보고안전 제26호 『○○○○○○○○○○의 ○○○○회계연도 ○○○○·○○○○ ○○ 보고』를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2020회계연도 운영 방향과 2020년에 실제로 운영하신 실적에 정치(精緻)한 면이 없음. 이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액션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저희는 금감원처럼 감리인원이 많지도 않고 저희가 심사를 하면 보통 일주일에 하나 정도를 소화하는데 전체적으로 소요기간은 심사의 경우에는 3개월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서 심사제도로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하는 부분에 심사역량을 좀 더 집중했었음.
- (위원) 감사반과 중소기업법에 대한 내용은 차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중소기업법에 대해서 추가 감독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3가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3가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 (보고자) 감사반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보고 드린 (안)대로 저희가 2021년 감리를 실시할 계획임.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였으나 회계법인의 경우는 감사반과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다르고 조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필수항목 위주로 점검을 하는 경우는 보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음. 금년 이후부터 新외감법에 따른 다양한 강화된 감독제도가 많이 시행이 됨. GAAS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GAAP 위반이 없더라도 제재효과가 큰 GAAS 감리를 많이 강화하고 개선권고 부분도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외부공개 및 이에 대한 미이행시 행정조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된 新외감법에 제도가 많이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먼저 충실하게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효과가 없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추가방안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임.

○ (위원)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 협의회 업무 지원’ 이렇게 해서 20사가 있음. 이것이 新외감법이 개정되면서 지정되는 당기 감사인들이 너무 감사를 엄격하게 실시함에 따라 전·당기 감사인 간에 감사의견이 불일치되고 그로 인해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완장치로 이런 기구를 금융위에서 긴급하게 만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음. 이 제도와 관련해서 “이 제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다. 더욱 발전시켜서 잘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듣고 있음. 지금 현재 20사 업무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도 운영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회사들이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한 당사자로서 이 제도의 개선·보완을 포함해서 증선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감리조치 관련 소송 대응(4건)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감리조치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지?

- (보고자) 위탁감리위원회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민원접수한 건에 대해서도 소송이 1건 제기됐음. 그리고 증선위 조치와 관련된 소송도 2건이 진행됐었음.

○ (위원) 그다음에 ‘회계법인 품질관리 지원업무’라고 되어 있음.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파일럿 지원업무’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공회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 (보고자) 감사인 감리업무는 외감법상 위탁되어 있는 감리업

무를 수행하는 부분이고 비등록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여기에서 말씀드린 회계법인 품질관리지원업무는 저희가 위탁받은 업무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등록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래서 품질관리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Big4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법인에 대해 감사인등록제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한공회 차원에서도 등록법인의 품질관리개선을 위해서 일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현장진단을 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업무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 (위원) 감리계획 자료를 보면 직접적인 감리는 축소하고 감리대상 회사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결국 “감사인 감리를 통해서, 품질관리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실제로 한공회가 생각하고 있는 개별 지적 위주의 감리를 반 이상 줄이면서 품질관리 위주로 전환을 했을 때, 그렇다면 품질관리의 실효성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 (보고자) 지난 번 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원계획 수립시에도 조직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심사 개수가 줄어든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감사반의 경우 일정을 하루 늘려 개별감사보고서 점검을 확대해서 심사개수를 2개에서 3개로 늘렸음. 또한 감사인 감리와 관련해서 품질관리 개선에 대한 실효성 관련해서는 감사반의 경우에는 필수점검항목 위주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4가지 중요요소에 대해서 집중감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음. 중소회계법인의 경우에는 감리선정

방식을 기존의 주기 방식에서 위험요소가 높은 감사인을 먼저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기를 파기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금번의 경우에는 주기가 3년 정도에 도래되는 회계법인도 실제 선정이 되었음. 두 번째로는 新외감법에서도 도입된 회계기준 위반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감리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GAAP 위반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에 대해서 과징금까지 부과 되기 때문에 감사인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상당히 높음. 그래서 재무제표 심사제도보다는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개선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음. 그래서 이 제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품질관리 개선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봄. 또, 다른 新외감법에 제도 보완된 사항이 이행점검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행점검과 관련해서 기존에 미이행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행을 하라고 재요구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되면 외부공개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시에는 행정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감사인한테 안내도 많이 하고 있고 향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많이 보강되어 있는 상태임.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강화된 제도를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고 이런 제도 시행 후에도 반복된 지적사항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추가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위원) 지난번 계획보고하실 때와 오늘 실적 분석 관련해서

보고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계획보고시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음. 지난번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 관련하여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심사·감리 숫자가 축소된 부분 관련해서 다른 여타 부분에 대한 효율화를 감안해서 한공회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시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년 수준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남. 감리업무라고 하는 것이 증선위 위탁으로 한공회에서 상장법인이라든지, 이런 법인을 제외한 27,000개에 해당하는 중소형 기업에 대해 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 숫자로 보면 100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그런 식이 되는데 그것은 증선위가 한공회에 위탁한 감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signal)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생김. 물론 한공회에서는 다른 부분을 효율화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감리하는 숫자를 크게 늘리거나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림. 그다음에 감사인 등록지원업무를 증선위가 위탁한 업무는 아니지만 서비스차원에서 그리고 예방적으로 사전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품질관리라든지, 외부감사 효율화와 관련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잘 이해했음. 공인회계사회로서는 회계사들의 감사인, 회계법인들이 상장법인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에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직접적으로 감리해야 된

다는 것이 증선위가 위탁한 한공회의 가장 큰 업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일단 계획하신 대로 한 번 해 보시기는 하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증선위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차년도 업무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감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마지막으로 품질관리감리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한공회의 의견은 일단 중소회계법인에 대해 감사반처럼 생략된 형태의 품질관리감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함. 하지만 대형회계법인이나 중소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또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능력(CAPA)과 관련해서 이것을 똑같이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음. 일단, 한공회의 의견은 다른 것들이 강화된 부분이 있으니 우선 올해는 계획된 대로 하고 그다음에 지켜 보다가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그것보다는 중소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대형이나 감사반과는 별개로, 예를 들면 그 중간 정도의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지, 그것을 사전적으로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과 상의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 (위원장) 제26호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길 바람. 첫째,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에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재무제표 심사·감리 축소는 이러한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감리 목표를 '19년 이전수준을 감안하여 양적으

로 회복시킬 방안을 마련하여 '22년 감리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람. 둘째,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지원업무가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지를 자체 분석하여 증선위에 진행경과 및 최종결과를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셋째, 금년 상반기 중 중소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품질관리감리 방안을 마련하여 증선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넷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전·당기 감사인간 조정협의회 지원 업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 개선사항을 증선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람.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01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0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03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건을 일괄상정하고,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들의 양해를 구한 후 보고는 생략함.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4호 『(주)비엔케이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16시16분 정회)

(16시30분 속개)

- 의결안건 제105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건을 상정하고, 사전간담회에서 충
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들의 양해를 구한 후 보고는 생략함.

○ (위원)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내
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딜(Block
Deal)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블록딜(Block Deal)
이라고 하는 것은 장중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고안한 절차입니다. 경영권 양수도라
든지,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 거래를 완성 시키는 절차로
서, 첫 번째는 당연히 거래상대방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경영권 양수도와 같이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실사와 평

가작업이 선행됨. 그 과정에서 잠재부채와 손실에 대한 평가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 거래의 시기, 조건 등을 합의하게 됨. 이와 같이 거래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국거래소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량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음. 또한 실물 주권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도 있음. 그런데 어떠한 경우든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과 수량, 할인율이 되겠음. (주)□□□□ 주식의 처분 과정에서 실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요약하자면, 처음에 가격 제한 없이 긴급히 처분하다가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CD주문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마지막에는 가격 제한 없이 팔아 달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음. 두 번째, 감사의견의 성격,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감사의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정’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한정’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대체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관리종목인 점만 호가창에 표시가 되고 거래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시장에서의 가격발견기능은 그대로 작동됨. 그 결과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지난해에 있었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음. 이에 반해서 ‘의견거절’이 나오면 그 즉시 매매거래정지가 이루어짐. 해석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는 것이 확실시 되니까 당장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됨.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악재성 정보로 정리가 될 것 같음. 참고로 판례를 찾아보니 최근 것은 찾기 어려웠고 2002년, 2003년의 판례인데 이미 ‘감사의견 거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전부 악

재성 중요정보로 판단되었음. 아까 말씀드린 가격발견기능이 작동되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2020년 중 총 3건의 반기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거절'이 나왔음. 회사는 모두 코스닥 회사였고, '의견거절'이 나온 이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실제로 거래는 계속되었음. 이때 공통적인 시장의 반응은 즉시 하한가 즉, 다시 말해서 주가가 30% 급락했고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익일에도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도 발견됨.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견 거절'은 대체로 악재성 중요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감사의견 거절'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는 부분은 공시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그것이 최종적으로 공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보를 내부자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규제가 따라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위원님들이 사전간담회 과정에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주)■■■■의 대표이사가 이 의견거절에 관한 정보를 지득한 것으로 일부 저희가 확인하고 또 확인된 사실을 통해서 추정하였음. (주)■■■■는 최대주주이고 또 제174조제1항제5호에 따라서 대표이사인 A씨는 핵심내부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 경위와는 별개로 미공개정보 이용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된 과징금 계산에 일부 오류가 있어 그 내용은 수정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 (위원장) A, (주)■■■■, B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C에 대해서는 과징금 기준금액을 수정하여 최종 과징금 부과금액은 30,800,000원을 부과하도록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보고안건 제27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개정 결과 보고』 건을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28호 『중선위 등의 효율적 논의 지원을 위한 개선 선방안 보고』 건을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54분 폐회)